

## HEADLINE NEWS

### 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생산 정보제공 식품사업자 등록제도」 도입 (동경)

최근 일본 東京都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경도 생산 정보제공 식품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 都内에서 판매되는 식품 및 그 식품의 생산·제조·유통·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접수를 시작했다. 이에 따르면, 식품사업자는 식품의 생산정보를 기록·보관하고, 소비자 대응창구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며, 생산 정보 등을 표시·제공해야만 등록이 가능하다.

都是 이 등록제도에 따라 각 식품에 등록 마크를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식품선택의 기준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등록제도 개시에 맞추어 농림수산부에 '식료안전실'을 설치하여 농림수산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지도 등 식품 안전성에 관련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www.metro.tokyo.jp)



## HIGHLIGHTS

### 도시관리

- ① 새로운 용도지역지구제 「스마트 조닝」 도입 (캘리포니아)
- ② 도심 진출 '월마트'의 부정적인 효과 (시카고)
- ③ 「아키하바라 크로스 필드(Cross Field)」 IT거점 조성 (동경)
- ④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점수를 5개 등급으로 순위를 매겨 공개 (오사카)

### 도시환경

- ⑤ 침수예상구역도 작성 및 공표 (동경)
- ⑥ 한층 강화된 소음규제책 제안 (뉴욕)

### 도시교통

- ⑦ 테러 예방을 위한 대중교통 안전 보안 강화를 위해 엄 달러 투자 계획 (뉴욕)
- ⑧ 악화되는 교통상황으로 인해 직주근접과 걸어서 출퇴근 하는 인구 증가 (볼티모어)
- ⑨ 도심부 진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한 혼잡통행료 부과 시범계획 확정 (스톡홀름)

### 사회복지·문화

- ⑩ 학습성과를 지역에 활용하기 위한 '인생대학' 설치 (동경)
- ⑪ 시민의 건강 위해 금연 지원프로그램 실시 (요코하마)

### 행재정

- ⑫ 취업지원센터의 업무 일부를 민간에 위탁 (동경)
- ⑬ 기업본사의 유출방지를 위해 지역이미지 향상 필요 (오사카)

### ① 새로운 용도지역지구제 「스마트 조닝」 도입 (캘리포니아주)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form-based zoning’ 또는 ‘스마트 조닝’ 이라 불리는 새로운 용도지역지구제를 곧 도입할 예정이다. 전통적인 조닝제도는 건물의 용도뿐만 아니라 높이, 스타일, 외형까지 세밀하게 규제하고 있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양식과 주거환경 선호를 반영하기가 어려웠다.

새로운 용도지역지구제 「스마트 조닝」의 가장 큰 특징은 융통성(flexibility)으로, 개발업자들은 주거지에 상업과 오피스 용도 등을 혼합하여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주의 모든 지방정부들이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선택사항이다.

([www.nctimes.com/articles/2004/06/16/news/state/14\\_32\\_066\\_16\\_04.txt](http://www.nctimes.com/articles/2004/06/16/news/state/14_32_066_16_04.txt))

### ② 도심 진출 ‘월마트’의 부정적인 효과 (시카고)

전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할인매장 기업인 월마트(Wal Mart)가 교외지역에서 도심지역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도심의 소매업자들은 월마트의 도심 진출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2004년 5월 미국 시카고市 도시위원회는 市남부지역의 월마트 입지계획을 불허했다. 월마트가 들어서면 지역주민에게 저렴한 생필품을 공급할 수 있고 고용 증가를 유도하는 이점도 있지만, 도심의 수많은 소매업에 막대한 타격을 가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버몬트주를 대상으로 한 ‘the 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의 연구에 따르면, 월마트 슈퍼센터는 커뮤니티의 개성을 파괴하고 교통체증과 월마트 주변의 난개발까지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www.alternet.org/stories/18926](http://www.alternet.org/stories/18926))

### ③ 「아키하바라 크로스 필드(Cross Field)」 IT거점 조성 (동경)

일본 東京都 아키하바라(秋葉原) 거점개발계획이 최근 발표되었다. 연구거점으로 동경대학 대학원이 새로운 전공분야를 개설하고, 히다찌(日立) 제작소는 사업부문의 일부를 아키하바라로 옮길 계획이다. 都是 이 곳에 대학과 민간 기업의 연구시설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고 아키하바라 전자상가의 세계적인 지명도를 활용하여 새로운 IT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키하바라 신거점의 명칭은 「아키하바라 크로스 필드(Cross Field)」로 정해졌다. 총 사업비는 1,150억엔이며, 산·관·학(産官學) 연계를 추진하고, 벤처기업 육성 거점을 조성하고, 고속통신에 대응하는 데이터센터와 이벤트를 준비하여 2006년에 전면 개업할 예정이다.

([www.nikkei.co.jp/news/retto/20040520c3b2005220.html](http://www.nikkei.co.jp/news/retto/20040520c3b2005220.html))

### ④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점수를 5개 등급으로 순위를 매겨 공개 (오사카)

일본 오사카市는 2004년 10월 이후에 신축하는 맨션(우리나라 아파트와 같은 개념)과 상업빌딩, 오피스빌딩 등 대형건축물에 대해 환경에 대한 영향을 5단계로 평가하여 공개하는 「건축물 종합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러한 환경평가제도 운용은 시민들이 맨션을 구입할 때 참고정보가 되며, 건설예정지 주변의 주민이 빌딩에 의한 영향을 예측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이 제도는 연상면적 5,000㎡ 이상인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소음, 진동, 악취 방지’ 등 건물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재료의 내용 연수’ 등 건물의 환경 성능에 대해 市가 정한 50개의 항목에 따라 건축주가 스스로 건축물을 채점하여 그 결과를 市에 제출한다. 市는 이 점수를 5개 등급으로 순위를 매겨서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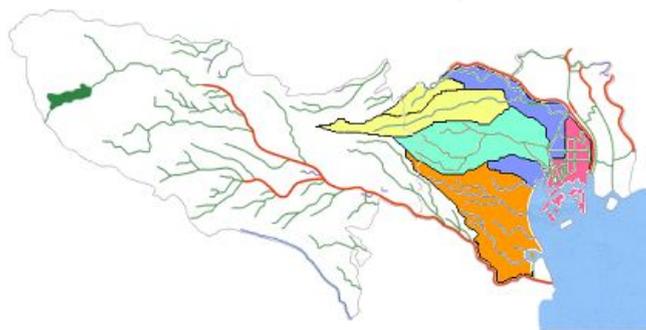
([www.nikkei.co.jp/news/retto/20040526c6b2603726.html](http://www.nikkei.co.jp/news/retto/20040526c6b2603726.html))

### 5 침수예상구역도 작성 및 공표 (동경)

일본 東京都는 최근 城南(城南)지구 하천유역과 칸토(江東) 내부하천유역의 침수예상구역도를 작성하여 인터넷을 통해 공표했다. 都는 호우에 따른 홍수 피해저감을 위해 하천과 하수도를 정비하고 빗물이 단시간 내에 하천을 통해 흐르지 않도록 빗물저류시설이나 지하침투시설을 설치해오고 있으나, 예상보다 많은 큰 비가 내릴 경우를 대비하여 수해의 위험성을 시민에게 알려 사전예방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침수예상구역도를 작성했다.

침수예상구역도는 2000년 9월 동해호우(東海豪雨)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001년 8월에 칸다가와(神田川) 유역 침수예상구역도 공표를 시작으로 스미다가와(隅田川) 및 신가시가와(新河岸川) 유역, 샤쿠지이가와(石神井川) 및 시라코가와(白子川) 유역의 침수예상구역도를 2003년 5월에 공표하는 등 지금까지 주요 5개 구역에 대한 침수예상구역도를 공표했다

이러한 침수예상구역도에는 홍수 발생시 위험한 장소(침수가 예상되는 구역), 위험의 정도(예상 침수 깊이) 등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당국은 피난 등의 대책을 강구하거나 건물을 건축할 때에 침수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등 침수예상구역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평상시에 수해 대비책을 철저히 준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각 자치구에서는 이 침수예상구역도를 바탕으로 하여 홍수위험구역지도를 작성·공표하고 있다. 홍수위험구역지도에는 피난장소 등의 정보가 알기 쉽게 수록되어 있다.



([www.kensetsu.metro.tokyo.jp/suigai\\_taisaku/index/menu02.htm](http://www.kensetsu.metro.tokyo.jp/suigai_taisaku/index/menu02.htm))

# 도시 환경/도시 교통

## ■ 세계도시동향 ■

### 6] 한층 강화된 소음규제책 제안 (뉴욕)

최근 미국 뉴욕시는 예전보다 한층 강화된 소음규제를 제안하였다. 시가 제안한 새로운 소음규제에 따르면,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소음부터 자동차 경적 소리, 가정의 개 짖는 소리까지 모든 소음이 규제의 대상이 된다. 특히 건설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소음에 대해 건설업자들은 ‘소음저감계획(noise mitigation plans)’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시는 지난 1997년에 루돌프 줄리아니 前 시장이 소음을 줄이기 위해 규제 위반시 벌금을 2~3배로 올렸지만 지금까지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www.csmonitor.com/2004/0611/p02s01-usju.html](http://www.csmonitor.com/2004/0611/p02s01-usju.html))

### 7] 테러 예방을 위한 대중교통 안전/보안 강화를 위해 1억 달러 투자 계획 (뉴욕)

미국 뉴욕시의 대중교통 운영을 담당하는 ‘MTA(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는 향후 대중교통부문의 보안 강화를 위해 1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를 위해 ‘MTA’는 현재의 대중교통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이를 근거로 테러예방대책 등의 보안부문 장기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미 ‘MTA’는 시설부문에 취약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전철역 등에 유독 물질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 설치, 추가적인 통제센터의 설립 및 보안카메라 확충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MTA’는 이미 9·11 사태 이후 대중교통 관련 보안인력을 증가시켜 왔으며, 시경찰당국도 지하철내 순찰관련 예산을 점진적으로 증액시키고 있다.

([www.nypost.com/news/regionalnews/23358.htm](http://www.nypost.com/news/regionalnews/23358.htm))

### 8] 악화되는 교통상황으로 인해 직주근접과 걸어서 출퇴근하는 인구 증가 (볼티모어)

앞으로 미국에서는 갈수록 악화되는 교통체증과 치솟는 기름값으로 인해 걸어서 출퇴근하는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센서스 조사에 따르면, 메릴랜드주 볼티모어市에서는 걸어서 출퇴근하는 인구가 18,000명으로 전체 출퇴근자의 7%를 차지하고 있다. 필라델피아 9.1%, 워싱턴 11.8%, 보스턴 13% 등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메릴랜드주의 다른 도시들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전문가들은 걸어서 출퇴근하는 인구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볼티모어 도심에 주거공간을 대폭적으로 확충하여 직장과의 근접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www.baltimoresun.com/news/health/bal-te.md.walking04jun04,0,3604663.story](http://www.baltimoresun.com/news/health/bal-te.md.walking04jun04,0,3604663.story))

### 9] 도심부 진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한 혼잡통행료 부과 시범 계획 확정 (스톡홀름)

스웨덴 스톡홀름市는 2005년 6월부터 13개월 동안 도심부 진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전 6시 30분~오후 6시 30분까지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약 3천원의 요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市는 혼잡통행료 부과시 15%의 교통량이 감소하고, 출퇴근시 약 5%의 대중교통 승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市는 신규 버스노선 10개를 새로이 운용할 계획이며, 200대의 굴절버스를 도입하기로 하고 300명의 운전기사를 모집하고 있다. 추후 혼잡통행료 시행시기 연장여부도 1년 동안의 시행 결과를 보고 2006년 9월에 결정하기로 하였다.

(EMTA News letter, 2004. 6. 17)

### ④ 학습성과를 지역에 활용하기 위한 ‘인생대학’ 설치 (동경)

일본 東京都 에도가와(江戸川)區는 2004년 10월 개강을 목표로 ‘에도가와 종합 인생대학’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이 ‘인생대학’은 학습성과를 지역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지며, 2년 과정의 2개학부 3개학과가 신설될 예정이다.

‘인생대학’의 교육과정으로 우선, 지역디자인학부에는 區의 전통문화와 산업 등을 배우는 에도가와학과, 음식과 음악 등을 배우면서 국제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국제커뮤니티학과가 설치되며, 인생과학부에는 자녀 양육 및 개호(介護) 등 가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현대가정경영학과가 설치될 예정이다. 區는 ‘인생대학’에서 배운 것을 지역에 환원하기 쉽도록 지역의 NPO법인과 자원봉사단체와의 연계를 도모할 방침이다.

([mytown.asahi.com/tokyo/news02.asp?kiji=3010](http://mytown.asahi.com/tokyo/news02.asp?kiji=3010))

### ④ 시민의 건강 위해 금연 지원프로그램 실시 (요코하마)

일본 요코하마市에서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 자치구의 복지보건센터에서 금연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금연을 희망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약 3개월간 개별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일부 區에서는 금연 시작의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 금연보조제를 상담자에게 배포하여 금연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금연과 담배, 건강에 관한 상담도 받고 있으며, 초·중 학생에 대한 금연교육 지원, 금연 프로그램 개발·보급, 그리고 시민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금연 프로그램 실시 등을 추진하고 있다.

([www.city.yokohama.jp/me/eisei/kinen/shien.html](http://www.city.yokohama.jp/me/eisei/kinen/shien.html))

### 취업지원센터의 업무 일부를 민간에 위탁 (동경)

일본 東京都는 2004년 7월 설치 예정인 취업지원시설 '동경취업지원센터'의 업무 일부를 재취업지원회사 두 곳에 위탁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민간의 두 회사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무료로 상담에서 취업 알선까지 폭넓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고용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두 회사에서 총 30명의 경력상담사가 '동경취업지원센터'의 2층에 상주하며, 중·장년층(30~54세)과의 상담을 통해 개개인의 경험과 능력, 상황을 파악하여 직업 선택 및 구직활동 등을 도울 계획이다.

([www.nikkei.co.jp/news/retto/20040517c3b1704o17.html](http://www.nikkei.co.jp/news/retto/20040517c3b1704o17.html))

### 기업본사의 유출방지를 위해 지역이미지 향상 필요 (오사카府)

일본 오사카(大阪)府 산업개발연구소의 최근 조사 결과, 간사이(關西) 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이 현재의 장소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된 이유로, 오사카府 소재 기업은 시장과의 근접성, 교토(京都)府 소재 기업은 생산거점과의 근접성, 그리고 효고(兵庫)縣 소재 기업은 지역이미지를 각각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개발연구소는 이 조사결과에 근거해 기업본사의 東京으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매력을 더욱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조사 결과는 2003년 11월에 오사카, 교토, 효고의 3府縣에 있는 자본금 1억엔 이상의 707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145개사가 보내온 회답을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다. 회답한 기업 중 오사카府에서는 6개, 교토府와 효고縣에서 각각 1개 회사에서 본사의 이전을 계획 또는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간사이 지역은 東京으로의 기업 본사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이미지 향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www.nikkei.co.jp/news/retto/20040610c6b1003c10.html](http://www.nikkei.co.jp/news/retto/20040610c6b1003c10.html))